

# Retro? Newtro!

최초와 최고가 공존하는 도시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



01

2018 JANUARY

굿모니 인천  
INCHEON MONTHLY MAGAZINE



COVER STORY  
Retro? Newtro!

매일 오래된 것이 더 새롭고 아름답다. 인천은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 최초와 최고가 공존하는 도시다. 시간의 흔적을 온전히 보듬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을 찾아간다. '크로마이트 카페'의 정순규 작가.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

여기는 인천역, 이 역은 1899년 9월 18일 경인선이 개통하면서 역사를 시작했다. 열차는 한 세기가 넘도록 인생의 철로 위를 달려왔다. 역 뒤편이 선창가일 때 우리 어머니들은 큰 함지박에 생선을 담고 서울 노량진까지 가 장사를 했다. 열차 안에 비린내가 진동했지만 아무도 탓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면서 직장으로 향하고, 어떤 이는 얼굴을 책에 파묻고 학교로 갔다. 한편에서는 온몸에 검댕 묻힌 이가 석탄과 씻덩이를 전국으로 실어 날랐다.

“이번 정차역은 인천, 인천역입니다.” 마지막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진다. 더 갈 곳 없는 열차가 사람들을 풀어놓는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머지않아 힘찬 기적소리가 정적을 깨뜨릴 것이다. 끝에서 다시 시작, 먼 길을 달려온 열차가 지친 몸 추스르고 새로이 길을 나선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발행처 인천광역시 — 발행일 2018년 1월 3일 —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 편집인 박혜란(브랜드담당관)  
편집장 유동현(홍보콘텐츠 팀장) — 기획·취재 편집위원 정경숙, 편집위원 김윤경 — 사진 김보섭·류창현  
디자인·인쇄 (주)씨에디터 —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CONTENTS

- 04 인천미소 굿모닝 마니아 外
- 06 2018 신년사 유정복 인천시장, 제갈원영 인천시의회의장
- 08 뷰파인더 인천 ‘인천시 홍보 동영상 제작 현장 - 김명중이 찍은 ‘인천’
- 16 섬 이야기 문갑도
- 22 커버스토리 Retro? Newtro! 빌라의 재발견, 크로마이트 커피
- 26 인천 VS 세계 도시 인천국제공항 VS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공항
- 30 얼굴 좀, 봅시다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윤성주
- 32 키워드 새해 달라지는 것
- 36 문화 캘린더 어린이베스트셀러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外
- 40 시정뉴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까지 연결… 2026년 개통 外
- 46 의회뉴스 ‘행복나눔인천’에 사랑의 쌀 후원 外
- 48 컬러링. 인천 영종도 거잠포
- 50 Info Box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인천지역 성화봉송 및 교통통제 안내 外
- 54 자원봉사 자원봉사왕을 소개합니다
- 55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브랜드, 문화가 되다
- 56 수상 매체 소개 ‘굿모닝인천’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 58 모닝 커피 한잔 우리가 녹은 온도, 인정<sup>스푼</sup>
- 59 인천 사는 나무 영흥도 십리포해변 소사나무



인천과 독자를 잇는 ‘미’디어  
독자에게 인천을 알리는 ‘소’식통  
‘인천미소’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늘 열려 있습니다.  
항상 미소 짓습니다.

##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 차곡차곡 쌓여가는 인천, 그리고 ‘굿모닝인천’

독자 최지숙(36·계양구 계산4동)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 결혼 후에도 인천에서 일하면서 가족을 꾸리고 사는 인천 토박이입니다. 최근 ‘굿모닝인천’을 다시 접하고 여러 종류의 잡지를 끼고 살았던 청소년 시절의 제가 떠올라 웃음이 났습니다. 인천에 오래 살았기에 고향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굿모닝인천’을 한 장 한 장 넘기니, 처음 들어보거나 알면서도 잊고 있었던 인천 곳곳 명소가 새록새록 떠오르더군요. 특히 12월에 실린 김구 특집 기사를 읽으면서 인천의 역사적 장소와 관련된 위인에 대해 알게 돼 유익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영화 속 장면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도 신기했구요.

또한 두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인천의 미래 발전 계획이나 인천에 있는 여러 좋은 대학과 학과 정보,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소식까지 유익했습니다. 일부러 찾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인천의 문화나 공연, 생활 정보도 알차고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큰딸은 컬러링 지면에 관심을 보이네요. 작은딸이 자기도 하고 싶다며 떼를 부려 잡지를 한 권 더 구해야 할 판입니다. 그동안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그동안 너무 바빠 ‘굿모닝인천’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다시 만난 이 오랜 친구를, 앞으로는 늘 곁에 두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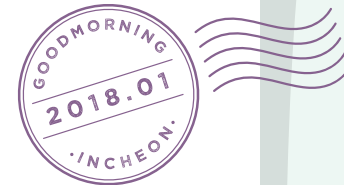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올 한해 인천이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최근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청라국제도시까지 이어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남편이 우리 집 앞에도 전철이 생기면 좋겠다고 바라더군요. 인천시 교통 인프라가 나날이 좋아져 남편의 바람이 이뤄지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 ☎ 440-8305/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

###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의 목소리’



####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 인천시민의 메시지

#####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꿈꾸며

인천 인구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 중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필요한 인천의 정책과 교육, 즐길거리 등을 ‘굿모닝인천’을 통해 자주 접하면 좋겠습니다. 인천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말씀드립니다. 새해에는 인천시민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써 주세요.

-채동숙 남구 주안중로

##### 인천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2018년 대한민국은 스포츠의 에너지로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과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이 열리는 올해, 인천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띄웁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모두 힘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의 자랑, SK와이브스 프로야구단도 올해 꼭 우승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천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최승호 중구 중산동 하늘별빛로

##### 인천시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복지를 이루길

지난해 인천은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노력으로 부채 도시에서 벗어난 인천시가 2018년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복지를 이루길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발표한 7가지 ‘애인’정책이 모두 실현되어 인천에서 꾸리는 삶이 더욱 풍요롭고 윤택해지면 좋겠습니다. 인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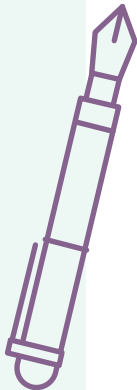
-노승운 연수구 송도동

##### 깊은 역사, 늘 새로운 인천

인천으로 이사 온 지 12년째인데 ‘굿모닝인천’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고 늘 새롭게 기사를 발굴하고 책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도시가 바로 인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나날이 새롭게 발전하는 도시, 인천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김은희 부평구 청천동

소중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 인천미소

‘미’디어 ‘소’식통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allwaysincheon)  
블로그(blog.incheon.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allwaysincheon)  
카카오톡(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allways\_incheon)  
웨이보(www.weibo.com/incheon)



## 재정 성과, ‘시민 행복’ 사업에 쓰겠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2018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무술년(戊戌年) 새해,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일마다 큰 성취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2조여 원의 교부세 확보, 4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 부자 도시로 거듭나는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또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을 통해 인천의 정체성을 찾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오랜 숙원이었던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인천발 KTX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등을 통해 광역교통망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2018년 인천은, 이러한 재정 건전화를 이루어낸 오늘을 토대로 내일의 행복을 향한 새로운 여정에 도전합니다. 재정 건전화의 성과 모두를 ‘시민 행복 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어린이집과 고등학교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유아에서 고등학생까지 모든 급식 문제를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재정 건전화 성과로 편성한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약 2조 8천억 원으로 총예산의 31.6%에 달합니다. 민선5기 마지막 해보다 1조원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육아, 교육, 노후, 일자리 정책을 대폭 확대해 시민들께 ‘인천에서 사는 재미’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시 인구의 76%가 거주하는 원도심을 활성화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인천 가치 재창조의 핵심인 원도심 지역의 고유문화를 지키면서 4차 산업혁명과 선진 인프라가 융합된 인천형 도시재생방식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매년 2천억 원씩 총 1조원의 예산을 원도심 정책에 쏟아부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기술과 낭만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 시정,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채 걱정은 ‘뚝’ 떨어 버리고, 행복 체감은 ‘배’로 늘려 시민을 ‘기’쁘게 하는 ‘뚝·배·기’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길을 타고 인천의 온기와 향기가 전 세계에 퍼지는 ‘인향만리(仁香萬里)’ 시대를 열겠습니다. 늘 우리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새해 아침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펼치겠습니다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맞이하는 새해,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 후반기에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가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책적인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상생의 협력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과 시민의견 수렴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과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누구나 쉽게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장의 권한은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 재정건전화를 위해 예산정책분석팀을 가동했으며, 인천의 현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상정하고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조화로운 협력과 견제를 통해 300만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연구하고 노력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 ‘시 재정의 안정화에 노력하는 의회’ ‘시민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의회’가 되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새해는 인천시가 부채 도시에서 벗어나 부자 도시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해입니다. 그동안 고통을 함께해 온 시민 여러분께 희망과 행복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무술년 황금개띠 해를 맞아 우리 인천이 모든 분야에서 비상하는 번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새해 아침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제갈원영



## 폴 매카트니를 찍는 남자 김명중, 인천에 시선을 멈추다

폴 매카트니의 전담 작가이자 조니 뎀, 내털리 포트먼 등 세계적인 셀레브리티들이 사랑하는 사진작가 김명중(MJ Kim·45). 그가 인천으로 시선을 돌렸다. 인천시 시정 홍보 동영상이 ‘세계적인 포토그래퍼가 담아낸 세계적인 도시, 시작은 인천으로부터’라는 신선한 콘셉트로 제작돼 관심이 뜨겁다. 홍보 영상 제작 현장에서 김명중 작가를 만났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MJ, 너희 나라에 온 기분이 어때? 난 최고데.” 비틀스 출신 폴 매카트니가 첫 내한 공연을 마친 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MJ Kim, 사진작가 김명중(45)은 폴 매카트니의 표정과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가까이서 바라보고 기록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다. 그는 10년 넘게 폴 매카트니의 전담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마이클 잭슨, 조니 뎀, 내털리 포트먼, 데이비드와 빅토리아 베컴 부부 등 수많은 셀레브리티들도 그의 고객이다. ‘세계적인’ 사진작가 김명중의 시선이 ‘세계적인’ 도시 인천으로 향했다.

인천시 시정 홍보 동영상이 김명중을 앞세워 ‘세계적인 포토그래퍼가 담아 낸 세계적인 도시, 시작은 인천으로부터’라는 신선한 콘셉트로 제작됐다. ‘인천은 날마다 새롭다.’ 김 작가가 진중한 눈빛으로 필름 속에 담긴 인천의 모습을 바라본다.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송도국제도시... 새로운 하늘과 바다, 땅을 품은 다채롭고 매혹적인 도시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다. 이내 생각에 잠긴다. ‘이러한 변화의 힘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

‘세계적’인 작가가 주목한  
‘세계적’인 도시

First ever,  
최초를 넘어 최고로

어느 햇살 좋은 오후, 김명중 작가가 인천 개항장에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 역사에서 시작된 문화를 따라 걷는 길, 발걸음에 힘이 실린다. 110여 년 전 지은 창고를 리모델링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인천아트플랫폼을 지나 개항박물관에 다다른다. 시간은 130여 년 전으로 돌아간다. 인천 최초는 곧 대한민국의 최초다. 타의에 의한 개항은 아프지만, 우리나라를 바꾸었고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다. 우리 시는 개항장 일대를 해양·문화·관광이 어우러진 ‘개항창조도시’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최초’를 넘어 ‘최고’를 향해 가는 아름다운 움직임이, 그에게 깊은 영감을 불어넣는다.





“영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오래된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것과 새것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이 인상 깊습니다.”



도시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다. 우리 시는 300만 인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누리고 더 행복하길 꿈꾼다. 김명중은 ‘사람’을 찍는 사진작가다. 그의 뷰파인더 너머 세상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그는 얼마 전 ‘길 밖의 세상으로 가다’ 사진전을 통해,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아시아와 남미에서 펼친 공적원조 현장을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딸을 목말 태워 빈민촌 언덕을 오르는 아버지, 거대한 쓰레기 처리장에서 살아가는 가족... 힘든 삶 속에서도 여전히 맑은 눈망울을 간직한 사람들이 카메라 렌즈에 담겼다. “빈민가에서 아빠와 딸이 환히 웃는 모습을 보고 삶의 근본적인 행복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왜 처음 사진을 시작했고 사랑에 빠지게 됐는지 기억났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주는 그 이상의 감동은 없습니다”.

결국 사람,  
사람이 행복한 도시 인천

인천시 홍보 동영상인 ‘세계적인 포토그래퍼가 담아 낸 세계적인 도시, 시적은 인천으로부터’라는 신선한 콘셉트로 제작됐다. 이 영상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http://www.incheon.go.kr))와 인천시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allwaysincheon](http://www.facebook.com/allwaysinche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천을 향한, 특별한 시선

photo by 김명중

세계적인 셀레브리티들을 좇던 시선이 인천으로 향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진작가 김명중(MJ Kim·45)이 작가의 손때 묻은 카메라를 들고 인천 곳곳을 누볐다. 그의 뷰파인더 너머로 비친 인천은 어떤 모습일까. 새롭고 활기차면서도 사람 냄새 가득한, 아름다운 풍경이 그 안에 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김명중(MJ Kim) 작가





“세상에 사람이 주는 그 이상의 감동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도 그 어떤 위대한 문명도, 사람만큼 마음에 울림을 주지는 않는다. 사람을 찍는 사람, 김명중. 그의 뷰파인더 너머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자신의 젊음을 걸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리의 청년들. 차가운 시장바닥에서 종일 고된 땀을 흘리는 어머니 아버지들. 36.5도 온기가 스민 삶의 현장에서,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본다.

#INCHEON

인천 최초는 곧 대한민국 최초다. ‘최초’의 역사를 넘어 ‘최고’의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아름다운 움직임이, 그에게 깊은 영감을 불어넣는다. 영국에 있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오래된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었다. 인천에서도 같은 느낌을 가졌다. “개항장을 걸으면, 마치 영국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옛것과 새것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이 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송도국제도시... 새로운 하늘과 바다, 땅을 품은 다채롭고 매력적인 도시 인천. ‘이러한 변화의 힘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

김명중 작가는 21년 만에 영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는 처음 인천 땅에 발을 디딘 후 그 발전상에 굉장히 놀랐다. 현대적이고 미래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도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적화된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에 진한 감동이 더해졌다.







느릴 수록 행복한 섬,

## 문 갑 도

문갑도, 인천에서 80km밖에 안 되는 곳이지만 하룻밤을 지내고 와야 하는 섬이다. 왕래가 쉽지 않은 덕분에 슬로 시티로 남아있는 평화로운 섬이다. 인천에서 뱃길(쾌속선)로 1시간 10분을 달려 덕적도에 도착한 후 덕적군도를 회항하는 차도선 ‘나래호’를 타고 다시 남쪽으로 25분을 달리면 문갑도에 다다른다. 40여 가구에 80명 정도 사는 원포인트 마을이다.

글·사진 류재형 사진가

물이 풍부하다. 우물물을 그냥 마셔도 좋다. 마을 사람들이 부지런해 항상 깨끗한 환경과 때 묻지 않은 천연을 그대로 유지한다. 돌레길이 심심찮게 조성돼 있고 물이 빠지면 갯티 길로 나가 소라나 갯을 잡을 수도 있다. 마을 앞 문갑해변에서 동북쪽으로 언덕을 넘어가면 한월리해변이 반긴다. 산에서 굴러 내려오던 민물들이 만나 속닥속닥 말잔치를 벌이는 기수역, 그와 맞닿은 타원형의 해수욕장이 아늑하다. 물때를 잘 맞추면 갯벌에서 바지락과 낙지, 소라를 한 아름 줌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선착장 입구에서 마을로 향하는 길엔 해당화가 도열해 여행객을 반기고, 산에는 계절 꽃이 지천으로 피어 ‘꽃 궁전’을 이룬다. 30~40분 걸려 산에 오르면 사방천지가 섬, 섬, 섬이다. 평화의 땅은 이런 곳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인천의 168개의 섬 중에서도 독특한 지형과 개성을 지녔다. 한번 찾은 관광객은 꼭 다시 방문하는 중독성이 강한 섬이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0년부터 낙후된 섬에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문화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당시 문갑도가 가장 낙후된 섬이었다. 70년대 초반까지 새우잡이와 웅기 제작으로 큰 어려움 없이 생계를 꾸려 왔지만, 이후 어르신만 남은 조용하고 외로운 섬이었다.

협의회는 문화예술을 통해 섬을 어떻게 가꿀지, 섬 사람들의 정주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지 머리를 싸맸다. 짧지 않은 8년 동안 이들은 섬을 답사하고 환경을 조사해 보고서를 만들었다.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술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간 인천시립극단 등 많은 예술가들이 찾아와 문화예술을 선보였고, 6m가 넘는 대형스크린을 통해 섬 최초로 영화를 감상하는 기회도 가졌다. 조용하던 마을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웅진군 최초로 마을 주민들이 주관하는 ‘문갑도자구리축제’를 3년간 내리 열기도 했다. 축제 때는 200여 손님들이 섬을 방문했고, 마을은 1박 2일 온통 축제의 열기에 빠져들었다. 8년 동안 100명이 넘는 문화예술가들이 섬에 들어와

자문역할을 했고 문갑도만의 음식 표준 조리법도 만들었다. 문화예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섬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다.

바다는 섬으로 가는 길을 수시로 막는다. 바다의 식물인 안개와 바람, 그리고 파도는 세상과 섬 사이에 파고들어 이질적인 문화를 만든다. 섬은 문명의 오염에서 벗어나 순결한 자연과 정신세계를 지니지만 소외되고 고립된 곳이다.

이제 문갑도 주민들은 순수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문명의 옷을 입고 있다.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열심히 궁리하고 있다. 주민 전원이 가입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과실수도 심고 특용작물을 재배해 적지않은 수입을 올린다. 평균 연령이 65세를 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익히고 즐긴다.

작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전통음식과 도구 발굴 프로젝트는 섬의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아카이빙을 통한 마을박물관을 생각해 본다.





문갑도의  
전통 도구 이야기

굴 캐는 도구 죄방석



찍새(굴을 쪼아서 연다는 뜻)라고 불리는 초승달 모양의 쇠 조각이 앞쪽에 달려있다. 이것으로 굴을 쪼아 입을 벌린 후 뒤쪽의 작은 쇠고리로 굴을 찍어 바구니에 담는다. 찍새는 인천 대장간에서 하나에 1천원씩 10개 정도 구입해 그때그때 갈아서 쓴다. 뒷부분 고리쇠도 역시 1천원, 한 번에 10개씩 사서 쓴다. 깎아서 만든 나무뿔치는 그 모양이 예술이다.



굴 바구니

굴을 담는 바구니 안에는 굴을 따서 담을 때 굴 안에서 나오는 바닷물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비닐이 붙어 있다. 이 작도(옛 이름은 이적도)에서 만든 것을 사다 쓴다고 한다. 예전(20~30년 전)에는 3천원이었으나 지금은 1만5천 원을 줘야 산다. 굴 바구니의 외부는 거친 굴딱지가 붙은 바위에 부딪혀도 상하지 않도록 그물을 붙였다. 바닥에는 원형의 나무줄기를 붙여서 쓰러지지 않게 대어 놓았다.



김 틀

문갑도는 1970년대 초까지 조기와 민어의 파시였고, 새우가 많이 잡혀 덕적도나 인근 섬에서 문갑도를 문갑광(보관하는 창고라는 의미)이라 부를 정도였다. 당시 밥과 김치가 주식이었지만 고기가 너무 흔해 말리고 찌고 알을 보관해 겨울에 먹고도 남았다. 이후 물고기와 새우가 사라지고 마을이 쇠락의 길을 걷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섬을 떠났다.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 조합을 결성해 김 양식에 들어갔다. 7월이면 산에서 참나무를 베어 갯벌에 박았고, 그물을 띄워 김의 종자(포자)를 달아 김을 양식했다. 허리만큼 차오르는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손으로 김을 채취해 바닷가 드럼에 담았다. 해변에서는 이 김을 틀에 떠서 말려 팔았다. 양쪽에 똑같이 김틀을 쌓아 놓고 번갈아 김물을 한 대씩 떠서 건조대에 붙여 말렸다. 눈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밤낮없이 건조대에서 김을 거둬들였다가 날이 맑으면 다시 널었다(아래 사진은 70년대 김 뜨는 모습).



고기잡이 도구 사닥

1970년대까지 가을이 돌아오면 문갑도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엔 사닥이 필수품이었다. 사리 때 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갯벌 깊이 들어간다. 미리 갯굴(마을에서는 굴뚝, 혹은 굴뚝이라 부른다)을 캐고 이를 망치로 부수어 바다 내음이 나게 한 다음, 사닥의 가운데에 놓고 물속에 넣어둔다. 10~15분 후 조용히 망을 들어 올리면 그 안에 망둥이, 돌게 등 물고기가 들어와 있다. 참 신기한 도구다. 깨진 굴의 냄새를 맡고 고기가 물려든다고 한다. 물고기들이 밀물 따라 들어오는 습성을 이용해 이런 도구를 만들어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다. 특히 살이 오르는 가을이면 문갑도 아이들은 너도나도 고기를 잡는 즐거움에 빠진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전통고기잡이 도구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추억을 잊지 못한다. 인천 서해의 어획량이 줄면서 섬 청년들은 줄지어 육지로 빠져나갔다. 사닥의 운명도 거기까지였다.







300년 넘은 다듬잇돌

다듬잇돌이 3개나 뒤뜰 채소밭 마당에 있다. 제일 오래된 다듬잇돌은 둥그런 차돌이다. 넓적하고 판판한 모양을 하고 있고 일반 다듬잇돌보다 약간 작다. 18세에 시집 온 남준심 어르신(91세)의 시할머니의 시할머니 때부터 사용해 왔다. 어림잡아 300년이 넘는단다. 한낱 돌맹이에 불과하지만 돌이 지닌 의미는 작지 않다. 술한 세대를 거치며 집안의 필수품으로, 여인들의 삶과 애환을 담아내 온 물건이다.



호룽불

호룽불은 초기에 피마자 기름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석유로 바뀌었다. 호룽 이후 양초가 등장했고, 1970년대 발전소가 생기면서 양초도 사라졌다. 호룽은 용도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른데, 문갑도에서는 세 집에서 서로 다른 호룽이 발견되었다.



나무 맷돌

나무 맷돌은 김남준 씨 집 한 곳에서만 발견되었다. 만들새가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홍송 재질의 거대한 통나무를 2토막으로 세우고 아래 위의 접합부분을 비스듬히 톱니형태로 깎아 만들었다. 윗부분(암맷돌이라 부른다)에는 곡식을 넣을 수 있도록 그릇 형태로 깎았다. 중앙에 구멍을 뚫어 곡식을 아래로 흘려 보낸다. 또한 암맷돌을 돌릴 수 있도록 큰 나무 손잡이(맷돌을 돌리는 손잡이를 일컫는 말로 ‘어처구니’라고 부른다)를 몸통에 끼워 놓았다. 아랫부분(수맷돌이라 부른다)의 중앙에는 위 맷돌을 돌릴 때 빠져나가지 않도록 축을 만들어 고정했다. 굵게는 갈리지 않아 주로 곡식의 껍질을 벗길 때 사용했다.



뒤주

뒤주는 마을에서 10여 쌍이 발견되었는데, 그 형태나 크기가 모두 달랐다. 특히 후(신·십간의 8번째에 위치하는 천간으로 오곡을 새로이 수확하여 수장한다는 뜻), 壽(수·수명, 나이, 장수의 뜻), 福(복·아주 좋은 운수) ‘큰 행운과 오뚝한 행복’이란 뜻) 등의 글씨가 새겨진 것들과 옷칠을 한 것도 있었다. 보관 장소와 보존 상태가 여의치 않아 원형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 뒤주는 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졌다. 천판(뚜껑)을 떠받치고 있는 네 기둥의 무게감과 우직함으로, 집 대청마루의 굳건한 위치에서 가족의 행운과 장수, 부를 상징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저 옛 문화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 밖에 김밥, 김대박, 김건조대, 구력(일명 망태기), 나무로 만든 망둑어 낚시대, 맷방석, 도리끼, 나무절구, 갈퀴, 키, 채, 시루, 낚시 그릇과 어선(목선)에서 사용하던 나침반, 그물바늘, 나무망치, 어망에서 고기를 떼어낼 때 쓰는 도구, 락, 말, 막대나무자를 등도 발견되었다.





빌라 위에,  
추억을 짓고  
기억을 세우다

때론 오래된 것이 더 새롭고 아름답다. 인천은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 최초와 최고가 공존하는 도시다. 시간의 흔적을 온전히 보듬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 시킨 공간을 찾아간다. 그 첫 번째로, 낡고 오래된 다세대주택을 시대의 감각으로 재구성한 ‘크로마이트 커피’의 문을 두드렸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크로마이트 커피’는 여섯 가구가 살던 다세대주택이었다. 겉모습은 주변의 연립 주택과 다르지 않지만, 그 안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의외의 장소,  
예상 밖 매력



커피에 대한 자신감 하나로 ‘인천 상륙’을 감행한, ‘크로마이트 커피’의 전승예 대표

‘크로마이트 커피’를 찾아가는 길은 미로 같았다. 연수구 옥련동 주택가의 구불구불한 골목을 따라가면서, 길을 제대로 들었는지 자꾸 의심이 났다. 다행히 카페가 나왔다. 겉모습은 주변의 다세대주택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은 전혀 예상 밖의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

인적이 드물었던 이 골목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1월 ‘크로마이트 커피’가 문을 열면서부터다. ‘크로마이트(Chromite)’는 인천상륙작전의 암호명. 부산에서 이름난 커피 전문가인 전승예(57) 대표와 진선기(29) 매니저가 커피에 대한 자신감 하나만으로 인천 상륙을 감행했다.

아무리 커피 맛으로 승부한다지만, 이 후미진 골목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공간의 끌림에 신경을 썼다. 원래 이곳은 여섯 가구가 살던 다세대주택이었다. 지은 지 25년 된 오래된 집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이는 친환경 디자인을 하는 정순구(42) 작가다. 카페 그 이상의 문화공간으로 떠오른 재생 건축 ‘엔트리아이트’와 ‘잇다 스페이스’에도 그의 손길이 스며있다. “공간은 저마다 사연이 있고, 시간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그 맛이 다르지요. 잊히고 단절된 공간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끌어내 새롭게 풀어내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이 흐르던 공간은  
지금 커피 향기로 가득 차 있다.



‘스페셜티’  
부산에서  
인천으로 상륙

그렇게 ‘크로마이트 커피’는 시간의 흔적 위에 시대의 감각을 덧입히며 나날이 새로워졌다. 그 낯설면서도 매력적인 공간은 젊은 층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SNS에 ‘인증샷’을 남기기 좋은 카페로 알려지면서, 인천은 물론 멀리 다른 도시에서도 원정 오기 시작했다.

직접 로스팅하여 제대로 내린 커피 맛으로도 소문이 났다. 크로마이트 커피의 강점은 ‘스페셜티 커피’다. 부산은 카페 문화가 발달한 서울보다도 스페셜티 커피가 한 수 위라고 한다. 제대로 된 커피가 부산에서 인천으로 공간 이동을 한 것이다. 크로마이트 커피는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 손님들의 입맛에 맞는 스페셜티 커피를 제공한다. “손님들이 공간과 커피 모두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을 맞춰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바리스타가 아무리 좋은 커피를 내린들, 마시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보통 사람들의 평범하면서도 아름다운 삶이 흐르던 공간은, 지금 짙은 커피 향기로 가득 차 있다. 겨울 한가운데, 뽀뽀 언 두 손으로 따스한 찻잔을 감싼다. 가슴 깊은 곳까지 온기가 스며든다.

공간,  
다시  
쓰이다

시간이 흐르면 누구든 떠나게 마련이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전부인 텅 빈 공간. 사람들은 떠났지만 삶의 애환은 고스란히 남겨졌다. 작은 방이 다닥다닥 붙은 집에서 우리 이웃들은 오순도순 자식을 키우고, 살림을 불려나가는 재미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고만고만한 형편이었지만 이 자리에서 희망도 키워갔을 것이다.

작가는 그 소박하지만 빛나는 삶의 공간이 가진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커췌이 쌓인 시간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원래 주인들이 남기고 간 것들을 버리지 않고 거뒀었다. 그렇게 ‘발견’한 물건들을 고쳐 다시 써 새롭게 했다. 카페 일층이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라면, 그 아래층은 시간이 멈춘 공간이다. 지하 갤러리 한편에 자리 잡은 텔레비전은 이 집에 살던 할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준 오랜 벗이었다. 공사를 하면서 나온 전선줄은 삶이 씨실과 날실로 엮이듯 한 폭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있던 것은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공간에 스민 기억은 한번 지우면 다신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원래 주인이 남긴 물건은  
거뒀다 다시 쓰였다.  
지하 갤러리 한편에 자리  
잡은 텔레비전은 이 집에  
살던 할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준 오랜 벗이었다.



지은 지 25년 된 빌라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친환경 디자이너 정순구 작가



information





#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 VS

# CHARLES DE GAULLE, AÉROPORT

## 하늘에도 길이 있다 ‘세계 최고’ 공항의 아름다운 비상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16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 6천 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국제 여객 운송 부문 세계 5위인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공항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 제2여객터미널(T2)의 개항으로 곧 국제 여객 운송 부문 세계 7위에서 5위로 가뻔히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vs 세계 도시’ 그 첫 번째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떠나는 자들의 하늘 관문 인천국제공항과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공항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 화려한 비상, 그 시작

바다 위로 비행기가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풍경이 낮설고도 설렌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어디론가 떠나기 위한 정거장,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가는 국내외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종도에서 만나고 헤어지면서 인천을 기억하고, 그리워한다. 2001년 3월, 대한민국의 땅 길과 바닷길을 열었던 인천에 새로운 하늘길이 열렸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완벽한 개항. 그로부터 17년 후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 세계 국제 화물 운송 2위, 세계 국제 여객 운송 7위로 성장했다. 세계 어느 공항과 견주어도 어깨를 으쓱거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량이 됐다. 프랑스 파리에서 북쪽으로 25km를 달리면 샤를드골공항(Charles de Gaulle Airport)에 이른다. 1974년 3월 개항한 샤를드골공항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이자 유럽의 주요 관문이다. 공항 면적은 32.57km<sup>2</sup>로 유럽에서 가장 크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프랑스 전 대통령 이름을 따 샤를드골공항으로 명명했다.





개항 2001년 3월 29일  
부지 2,293만7,000m<sup>2</sup>(677만5,000평)  
주요 시설  
여객터미널 322만7,000m<sup>2</sup>, 탑승동 16만6,000m<sup>2</sup>,  
화물터미널 114만7,000m<sup>2</sup>, 활주로 3개  
취항 노선  
여객 55개국, 186개 도시 / 화물 55개국, 186개 도시

##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 V S

## CHARLES DE GAULLE, AÉROPORT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공항

개항 1974년 3월 8일  
부지 3,257만m<sup>2</sup>(985만2,000평)  
주요 시설  
관제탑 3개, 여객터미널 3개, 화물터미널 6개,  
활주로 4개(4,300m 2개, 2,700m 2개)  
취항 노선  
여객 120개국, 319개 도시 / 화물 100개국 319개 도시

### 국제 여객 수용, ‘세계 톱 5’로

영종도의 하늘은 온종일 들고나는 비행기로 열기가 뜨겁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연간 이용객 6천 만 명을 넘어섰다. 개항 16년 만이다. 이는 국제 여객 운송 부문 세계 5위인 샤를드골공항(연간 이용객 6천38만 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2018년 1월, 제2여객 터미널(T2)이 개항과 함께 곧 국제 여객 운송 부문 톱7에서 톱5로 가뭄히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객 처리 능력은 종전보다 33%(1천800만 명) 늘어나 7천200만 명에 이른다. 2023년 T2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1억 명 수준까지 증가한다. 화물 처리 능력은 450만t에서 500만t으로 확대된다.

광활한 하늘에도 길은 있다. 인천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 하늘에 길을 내어 주고, 가까이 날개가 되어 준다. 연 6천만 명이 인천의 하늘길을 지나 세계 55개국 186개 도시로 향한다. 샤를드골공항은 120개국, 319개 도시에 취항한다.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 이어 둘째로 많은 승객이 이 공항을 찾는다. 2020년에 9천 만, 2030년에는 1억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는 것이 목표다.

### 공항까지, 편하고 빠르게

인천국제공항과 샤를드골공항은 각각 아시아와 유럽의 허브에 걸맞게 ‘초연결 공항’을 지향한다. 샤를드골공항은 철도(RER)와 버스 노선, 고속도로가 잘 갖춰져 있다. 공항 내 테제베(TGV) 역에서는 고속열차가 하루 45회 달리고, 40개 버스노선과 3개의 고속도로가 연결돼 있다. 2024년에는 파리 시내에서 20분 내에 공항으로 갈 수 있는 ‘CDG express’가 개통한다.

인천국제공항 가는 길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긴 다리인 인천대교가 꼭 뻗어있다. 2009년 10월 16일, 인천대교가 놓이면서 송도국제도시와 영종지구가 단 15분 만에 이어지고, 서울 남부와 수도권 이남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통행 시

간이 40분 이상 단축됐다.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역까지는 공항철도가 달리고, 인천국제공항역에서 용유역까지는 인천국제공항 순환 자기부상열차가 운행한다. 특히 T2의 개항으로 버스·철도 환승클러스터가 조성돼 출입국과 환승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졌다. 특히 버스·철도 대합실을 제2교통센터로 통합 배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한결 편리해졌다. 교통센터와 여객터미널 사이의 이동거리도 1터미널 223m에서 59m로 대폭 단축됐다.

T2의 개항으로, 더 높고 드넓은 하늘길이 대한민국 인천에서 다시 열렸다. 세계 최고 공항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은 이미 시작됐다.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윤성주



못생겼다고 내놓지 않으려고 한 손과 사무실 책상에 붙여놓은 손주들 사진

## ‘썸’ 것으로 치병긋하다

사진 김보섭 | 글 유동현

인터뷰 며칠 전, 사진가의 요구를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무대나 연습실에서 직접 춤 사위를 보여주실 수 있는지요.” 바로 답이 돌아왔다. “그건 곤란해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답변이다. 100미터 스프린터가 순전히 사진 촬영을 위해 트랙 밖에서 전력 질주할 수 없는 노릇, 그건 당연하다. “그럼, 검은 색 옷을 입고 만날 수는 있는지요.” “…….” 전화선으로 냉랭한 느낌이 전해져 왔다. 윤성주(61)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는 지난해 5월 인천에 왔다. ‘전(前)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이란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지역 무용계는 물론 문화예술계의 큰 관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인천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그의 방을 찾았을 때 그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연습실에 계시다’는 직원의 설명을 들은 지 15분 후에 검은 색 ‘계통’의 옷을 입은 그가 나타났다. “죄송해요, 평창올림픽 폐막식 때 우리 무용단이 공연을 하는데, 그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얼마 전 그는 ‘신고식’을 했다. 지난해 11월 10, 11일 양일간 시립무용단의 제81회 정기공연으로 ‘2017 만찬-진, 오귀’를 무대에 올렸다. 인천에서 안무한 첫 창작 작품으로 큰 굿이자 재(齋)의 성격을 띤 무속 판타지 무용이었다. 이 작품을 본 필자의 지인은 공연이 끝나자마자 극장 밖으로 뛰쳐나와 참았던 긴 숨을 토해냈다고 했다. 일렉트릭 사운드와 굿 장단 음악 그리고 강렬한 조명, 무엇보다도 신들린 듯한 무용수들의 몸짓에 압도되었다고 했다. 그만큼 아주 ‘썸’ 작품을 올린 것이다.

어쩌면 그는 ‘푸닥거리’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부임 직전까지 시립무용단은 크고 작은 일들로 빼적거리며 우려 섞인 시선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연은 일종의 치병긋이 아니었을까. 모든 걱정과 우려를 씻어내려는 제의(祭儀)이기도 했다. 감독 본인은 물론 모든 단원들에게 당분간 그것을 잊지 말자고 마음속으로 다짐이라도 한 듯 복도에는 또렷하게 서늘한 눈빛을 한 ‘오귀’의 주역 무용수 포스터 사진이 액자로 만들어져 여럿 걸려 있다.

사진가는 끝내 그를 무대 위에 세웠다. 춤사위는 없었다. 대신 그는 한 시간 가까이 텅 빈 대극장 무대 위에서 말없이 포즈를 취했다. 그의 표정에서 다양한 몸짓을 읽을 수 있었다. 분명 정(靜)이었지만 수많은 무대에 섰던 춤사위가 보였다. 희끗희끗한 사진가와 그 피사체가 된 여인을 멀찍이 떨어져 보면서 자꾸 시 한 수가 입가에 맴돌았다. ‘머언 먼 젊음의 뒤편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 2018년 새해 무엇이 달라질까

새해 우리 시에서는 고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다. 또 출산 가정에는 1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이 지급되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택시 환승 할인제가 시행된다. 시는 올해도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시민과 호흡을 함께하는 시정을 펼칠 계획이다.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시민과 밀접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정리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교육 문화 관광

#### 고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시행

오는 3월부터 인천지역 고교생 7만7천 명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이로써 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은 학생 1명당 연간 79만원의 급식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인천은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초·중고교까지 전 학년에 걸쳐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첫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문의: 교육협력담당관실 ☎ 440-2177

#### 섬 숙박업소 리모델링 지원

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강화, 옹진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된다. 시는 숙박업소 1곳당 최대 4천 만 원을 지원해 열악한 섬 숙박시설을 개선기로 했다.

문의: 관광진흥과 ☎ 440-4104

#### 관광식당업 3개 국어 메뉴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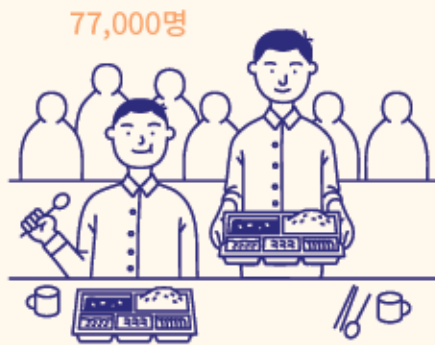
시는 인천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음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광식당업으로 지정된 식당의 메뉴판을 외국어로 바꾸는 작업을 지원한다. 영어, 일어, 중국어로 메뉴판을 제작하는 사업은 올해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문의: 관광진흥과 ☎ 440-4103

#### 관광모니터 운영

관광시설 및 관광서비스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관광모니터가 운영된다. 관광분야에 관심이 많은 내·외국인 50명을 모집, 관광객의 각종 불편사항을 발굴·신고하는 관광 파수꾼 역할을 맡긴다.

문의: 관광진흥과 ☎ 440-4104



### 여성 보육 가족



####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시행

민간 어린이집의 급식·간식비를 재정으로 지원하면서 1일 급식·간식 단가도 올리는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1천745원에 불과한 어린이집 급식단가를 2천200~2천400원으로 올리고, 부모 부담 보육료 6만6천원 중 급식비 3만8천원을 시가 지원한다.

문의: 출산보육과 ☎ 440-2892

####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

시민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천복지재단이 설립, 운영된다. 재단은 우선 시민들의 요구 사항과 필요한 부분을 조사·분석하는 활동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복지 허브 역할을 한다.

문의: 공감복지과 ☎ 440-2912

#### 국가보훈대상 보상·예우 확대

참전 명예 수당이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고,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 월 5만원과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이 신설된다. 군·구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한다.

문의: 보훈다문화과 ☎ 440-2972

####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탁물을 직접 수거해 세탁하고 배달하는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불, 담요 등 가정에서 직접 세탁하기 어려운 세탁물에 한하며, 3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문의: 공감복지과 ☎ 440-3463

#### I-Mom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 축하금이 현재 1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대상이다. 출생신고일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출산보육과 ☎ 440-3418

####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오는 9월부터 만 0~5세(72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아동 수당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해 받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아동청소년과 ☎ 440-2884

#### 여성·아동 세이프존 24시간 운영

여성과 아동 대상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1천곳을 세이프존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세이프존은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 대피하는 곳으로, 경찰청 핫라인과 연계된 SOS비상벨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문의: 여성정책과 ☎ 440-2757

### 사회복지



#### 암 등 중증 질환자의료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정형외과·안과 질환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인천 손은 약손' 프로젝트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이 6대 암에서 전체 암으로 확대되고, 치료비도 1인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된다.

문의: 보건정책과 ☎ 440-2712

#### 두뇌톡톡! 뇌 건강 시민학교 개교

뇌 건강을 돌보고 치매환자의 치료를 돕는 '두뇌 톡톡! 뇌 건강 시민학교'가 운영된다. 시민학교는 매주 월~금요일에 열리며, 뇌 건강 체험관 운영을 통해 치매 가상체험, 인지증진 영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의: 건강증진과 ☎ 440-1583



## 일자리·경제·산업



###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운영

소상공인과 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의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4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문의: 경제정책과 ☎ 440-4212

### 뿌리산업 지원 프로젝트 시행

지역 뿌리산업 관련 기업을 돕기 위한 ‘인천 뿌리산업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센터는 일자리 매칭과 뿌리산업 기술 습득, 일자리 지원 시책을 수행한다. 또 센터와 약정을 맺은 기업의 신규 취업자에게 1년간 매달 15만~30만원의 ‘경력형성금’을 지원한다.

문의: 일자리정책과 ☎ 3440-4232

### 일자리 소통공간 ‘잡스(Job’s) 인천’ 운영

일자리 관련 정보 검색, 상담·컨설팅, 스터디룸을 갖춘 일자리 소통 공간 ‘잡스(Job’s) 인천’이 운영된다. 일자리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문의: 일자리정책과 ☎ 440-4244



### 건축물의 내진설계 확인 대상 강화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대상’이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우리 집 내진설계 확인은 간편조회 서비스(www.aurum.re.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문의: 건축계획과 ☎ 440-4723

###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가 운영된다. 중소 제조기업 청년근로자에게 연간 120만 원 이내의 복지비(생애 1회)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온누리 상품권, 서점 이용, 문화활동비, 건강검진, 가족친화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문의: 창업지원과 ☎ 440-4162

### 청년 면접지원 사업

청년들의 구직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접복장 대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1회 5만원 이내, 연간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문의: 창업지원과 ☎ 440-4162

### 인천 창업재기펀드 투자대상 확대

경영기반 취약으로 실패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재기 펀드를 조성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융자가 아닌 투자를 통해 기업의 회생과 성장을 도모한다.

문의: 창업지원과 ☎ 440-4167

###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만 34세 이하 청년이 지역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하면 해당기업에 3개월간 월 70만원씩을 지급한다. 3개월과 6개월 이후에는 정규직 전환 장려금을 각 170만원씩 지원한다. 또 인턴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는 3개월과 6개월 이후 60만원씩 취업 지원금을 지급한다.

문의: 시 창업지원과 ☎ 440-4163

### 스마트 공장 보급 지원 확대

생산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 고객 만족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 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사전 진단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고, 스마트 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문의: 산업진흥과 ☎ 440-4287

## 도시계획·도시개발

###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기반시설 지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부담을 덜기 위해 기반시설(폭 8m이상의 도시계획도로, 공원·녹지, 공용주차장) 설치비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50% 이내다.

문의: 주거환경과 ☎ 440-3452

## 교통·해양



### 광역버스 노선 증설

광역버스 4개 노선을 신설, 25대의 버스가 추가 운행된다. 인천공항~광명역은 1월부터, 원인재역~광명역과 부평역~광명역은 2~3월쯤부터, 구월·서창·역삼역은 상반기 중에 운행될 예정이다.

문의: 버스정책과 ☎ 440-3983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변경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 따라 위해성이 높은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가 권고기준에 추가된다. 실내 오염 영향이 작은 오존을 삭제하고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으로 이관해 관리한다.

문의: 환경정책과 ☎ 440-3543

### 공해차량 운행제한

저공해 조치명령을 불이행한 차량과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대기보전과 ☎ 440-3553

### 수도요금 납부방법 개선

실시간 납부확인이 가능한 전자납부 고지서가 도입되고,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가 추가돼 수도요금 납부가 편리해진다. 신청은 사이버민원센터(minwon.waterworksh.incheon.kr).

문의: 상수도사업본부 각 수도사업소 요금팀 ☎ 032-120

### 교통편의·이동편의 증진

장애인 콜택시 바로콜 예약시스템이 운영된다. 전화 신청 후 30분 이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 택시화물과 ☎ 440-3802, www.intis.or.kr

### 택시 환승 할인제 시행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먼저 이용한 승객이 택시를 탈 경우 기본요금을 할인해 주는 택시 환승제가 10월부터 시행된다.

문의: 택시화물과 ☎ 440-3826

###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인천시민의 여객선 운임 할인이 현 60%에서 80%로 확대된다. 인천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명절을 전후한 5일간은 인천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해양도서정책과 ☎ 440-4983

### 실시간 주차정보 서비스 확대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공영주차장이 39개에서 220개로 늘어난다. 스마트폰에서 ‘인천시 미추홀 주차정보’ 앱을 내려받으면 실시간 주차 가능 면수, 위치, 요금 정보를 알 수 있다.

문의: 교통정책과 ☎ 440-3882

## 안전·생활·환경



### 노후 실내 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급수관의 노후와 부식으로 수도물 수질검사 항목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 급수관 교체 및 갱생 시 공사비의 80%가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150만원 이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가구별)은 1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상수도사업본부 ☎ 720-2124



CULTURECALENDAR

01

01

어린이베스트셀러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인천 스퀘어원 4층 문화홀  
매주 수·목·금 오후 4시/  
매주 토·일·공휴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전석 2만5천원  
☎ 010-2890-6160  
~1월 28일까지 공연

02

어린이 체험전 ‘헬로 브릭’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오전 10시~오후 6시  
아동 2만2천원,  
성인 1만7천원  
☎ 1644-1048  
~2월 24일까지 공연/  
매주 일요일 및 1월 1일,  
2월 15일~2월 17일 휴관

매직퍼포먼스  
‘판타스틱 스노우맨’

인천어린이과학관 1층 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2만5천원  
☎ 550-3300  
~1월 21일까지 공연/월요일 휴관

06

가족뮤지컬  
‘기분을 말해봐’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R석 4만원, S석 3만원  
☎ 070-8844-7179  
~1월 7일까지 공연

어반사운드-  
아시아 뮤직 앙상블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원  
☎ 289-4275

07

선데이 콘서트  
‘이재완 피아노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12

가족뮤지컬 ‘미운아기오리’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전 10시 15분, 11시 20분  
전석 1만원, 단체 6천원  
☎ 02-387-9411

13

가족뮤지컬 ‘렛잇고 시즌2’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3만원  
☎ 02-555-0822~3  
~1월 14일까지 공연

14

선데이 콘서트 ‘양상블 위’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17

교육뮤지컬 ‘옛호담’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전 9시 50분, 오전 11시  
전석 2만원, 단체 8천원  
☎ 010-2898-0014  
~1월 18일까지 공연

19



신년기획공연  
국악드림콘서트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3만원, S석 2만5천원,  
A석 1만5천원  
☎ 460-0560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70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 1588-2341

20

케이윌 전국투어 콘서트  
‘THE K.WILL’ - 인천공연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오후 7시  
VIP석 12만1천원, R석 11만원,  
S석 8만8천원, A석 6만6천원  
☎ 1522-2274



어린이 음악극 ‘페페의 꿈’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전 11시  
전석 2만원  
☎ 500-2000  
~1월 23일~25일 공연

21

클래식시리즈1  
빈 소년 합창단 내한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1588-2341



선데이 콘서트  
‘김상진&안명주  
조인트 리사이틀’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24

커피콘서트 스페셜 I  
진보라의 ‘재즈 플러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천원  
☎ 1588-2341



25

2018 신년음악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7시 30분  
R석 4만원, S석 3만원  
☎ 500-2000



브라indle 오케스트라 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시간 미정  
전석 무료  
☎ 440-4022

커피콘서트 스페셜 II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천원  
☎ 1588-2341

26

커피콘서트 스페셜 III  
유지나의 ‘씨네 토크’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천원  
☎ 1588-2341

27

패밀리쇼 어린이 뮤지컬  
‘핑크퐁과 상어가족’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 1566-6551  
~1월 28일까지 공연



28

선데이 콘서트  
‘아이레 플루트 앙상블’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이달의 展

백승기 작가 ‘눈 내리는 한옥의 풍경전’  
2917년 12월 16일~2018년 1월 31일  
도솔미술관

2017 기획전 II 현대미술기념展  
2017년 9월 8일~2018년 2월 25일  
해든뮤지움

지붕없는 갤러리  
2017년 2월 27일~2020년 2월 29일  
우리미술관 전시관, 오픈스튜디오(공동창고)

윈터 아트페어 Merry-go-round展  
2017년 12월 15일~2018년 1월 15일  
신세계갤러리 인천점

에디팅 안데르센 - by # 인생사진관  
2017년 12월 29일~2018년 3월 4일  
인천(송도) 인생사진관

in 송도: 포토에디션 [인천] 인스타지아  
2017년 12월 18일~2018년 3월 4일  
송도 IBS타워

[송도] 사이언스쇼 인체박물관  
1월 3일~2월 25일  
케이라이브 송도 홀로그램 전용관

김영우 개인전  
1월 30일~2월 5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백승기 작가 - 눈오는 날의 한옥  
162cm x 97cm 아크위에 수묵&수채화 2016



## 새해 첫 공연, 너로 정했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서로의 계획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1월입니다.

무술년 첫 외출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 공연은 어떠세요?

가족 뮤지컬부터 세계적인 합창단, 클래식과 국악 무대까지 새해를 기분 좋게 출발할

다양한 공연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 엘사와 함께 새해맞이

패밀리 뮤지컬 ‘렛잇고’ 시즌2

아이들이 사랑하는 캐릭터 겨울왕국의 엘사와 안나가 뮤지컬로 다시 찾아옵니다. 화려한 의상의 공주들과 아이들이 같이 부르는 ‘겨울왕국’ 주제가 는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 줄 거예요. 시즌1의 폭발적인 반응을 넘어설 다채로운 볼거리와 아름다운 음악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문의 및 예매 ☎ 1588-2341  
일시 1월 13일 오전 11시·오후 2시·4시,  
1월 14일 오전 11시·오후 2시  
장소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티켓 전석 3만원



### 우리 소리로 신명 나게

2018 국악 드림콘서트

대한민국 최고의 소리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악계의 아이돌 송소희를 비롯해 국악 신동 유태평양 그리고 변함 없이 우리의 소리를 지켜 나가는 다양한 국악인들과 신나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타악 그룹 런까지! 어깨춤이 절로 나는 우리 가락과 함께 새해를 신명 나게 시작해보세요.

문의 및 예매 ☎ 460-0560  
일시 1월 19일 오후 7시 30분  
장소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대공연장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5천원, A석 1만5천원



### 천사들이 전하는 희망 인사

클래식 시리즈1 빈 소년 합창단 내한 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의 클래식 시리즈’ 2018년 첫 주인공은 전 세계가 사랑하는 빈 소년 합창단입니다. 작년 5개 도시 전석 매진을 기록할 만큼 한국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빈 소년 합창단! 드디어 인천의 공연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양한 클래식 명곡은 물론이고 왈츠, 민요, 가곡 그리고 팝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만족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 1588-2341  
일시 1월 21일 오후 5시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온 가족이 흥겹게

어린이 뮤지컬 ‘핑크퐁과 상어가족’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입가에서도 떠나지 않던 노래, ‘상어가족’이 뮤지컬로 찾아옵니다. 상어가족은 국내 3대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몰이 중입니다. LED를 통한 화려한 퍼포먼스와 국민 동요 ‘상어가족’의 신나는 뮤지컬 버전은 아이들에게 세뱃돈 이상의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다 함께 ‘귀여운 두루루 두루~’ 불러볼까요?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 1588-2341  
일시 1월 27일, 28일 오전 11시·오후 2시·4시 30분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 국악계 스타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율

2018 신년음악회

부평아트센터에서는 KBS국악관현악단을 초청해 화려한 국악 무대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은 전통 국악을 넘어 다양한 음악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국악의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국악인 김영임, 해금 강은일, 소리꾼 김준수, 이봉근 등 국악계의 스타들이 협연해 더욱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선율에 몸을 맡기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문의 및 예매 ☎ 500-2000  
일시 1월 25일 오후 7시 30분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R석 4만원, S석 3만원





# NEWS BRIEF

##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까지 연결… 2026년 개통



우리 시는 지난 12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이 경제성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7호선 연장의 사업성과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 대비 편익(B/C)과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 값이 각각 1.10과 0.561로 나왔다. B/C가 1.0을 넘으면 편익이 비용보다 높다는 의미로 사업성이 있다는 의미다. AHP는 경제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평가하

기 위해 적용하는 기법으로, 0.5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뜻이다.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역까지 10.6km를 연결하고 정거장 6곳을 세우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7천827억 원, 시비 5천218억 원 등 1조3천45억 원이 소요되며 2021년 착공해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장암이 기점인 7호선은 경기 부천시를 거쳐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운행되고 있다. 현재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석남동까지 연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 연장을 2006년부터 추진해 왔지만 2012년까지 B/C가 0.29~0.56에 머물러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후 시는 노선 변경, 실제 공사비 적용, 신규 도시개발계획 등 사업을 재구조화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기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새 도시철도법을 피해간 것도 도움이 됐다.

문의 : 시 철도와 ☎ 440-3912

## 인천지역 항공사진 온라인 무료 발급서비스

인천지역 항공사진을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 시는 지난 12월 21일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항공사진 제공,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한 통합서비스 실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그동안 열람만 가능했던 인천지역 항공사진을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문의 : 시 토지정보과 ☎ 440-4587



## 인천의 새 캐릭터 ‘등대를 사랑하는 점박이 물범’

우리 시 캐릭터가 두루미에서 점박이 물범으로 교체됐다. 21년 만이다. 우리 시는 지난 12월 28일 인천을 대표할 캐릭터 ‘등대를 사랑하는 점박이 물범 친구들’을 발표했다. 현재의 두루미 캐릭터는 지난 1996년 인천의 광역시 승격을 계기로 탄생했다. 하지만 그간 시의성과 활용도가 떨어져 새로운 캐릭

터를 제작했다. 새 캐릭터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 동물인 백령도 점박이 물범을 모티브로 인천 시의 자연 친화적인 메시지와 친근한 이미지를 담았다. 또 대한민국 최초 등대인 인천 팔미도 등대를 포함함으로써 인천의 상징성을 더했다.

문의 : 시 브랜드담당관실 ☎ 440-3085



## 영종도에 항공물류센터 건립



영종하늘도시 항공산업클러스터에 항공물류센터가 들어선다. 우리 시는 지난 12월 28일 시청 접견실에서 (주)스카이로지스코리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항공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에 건립되는 스카이로지스코리아 항공물류센터는 영종하늘도시 항공산업클러스터 내 6만2천217㎡ 땅에 지상 5층, 총면적 16만1천332㎡ 규모다. 스카이로지스코리아는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를 주로 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일본 토세이(주)를 비롯한 국내 유수 물류 기업들의 투자로 만들어졌다.

한편 57만3천㎡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항공산업클러스터는 현재까지 항공엔진정비센터와 보잉항공운항훈련센터 등 해외 기업 2곳을 유치했다.

문의 : 시 투자유치과 ☎ 440-3298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우리 시가 지역 사업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150개 주민센터별로 접수처를 마련, 전담직원을 배치했다. 주민센터의 접수처는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와 핫라인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와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시 일자리경제과 ☎ 440-4233

## 지역주민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확대

우리 시는 민자도로인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통행료를 추가 지원한다. 그동안 시는 중구 및 옹진군 일부지역 주민들에게 인천대교 통행료의 62%를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자금 재조달을 통해 인하한 통행료 700원(6200원→5500원) 중 실질적으로는 300원만이 지역주민들에게 인하 혜택이 돌아감에 따라 경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조치다. 시는 추가적인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비율을 62%에서 68%로 상향(3,400원→3,700원) 조정했다.

문의 : 시 도로과 ☎ 440-3794

## ‘2019년 동아시아 문화 도시’ 선정

우리 시가 한·중·일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문화 행사인 ‘2019년 동아시아 문화 도시’에 선정됐다. 시는 ‘동아시아 문화 브리지 인천’이라는 구호를 걸고 2019년 한 해 동안 한·중·일 문화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동아시아 문화 도시는 한·중·일 3국의 갈등과 반목을 도시 간 문화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해소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 시가 2019년 동아시아 문화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3년 주기로 한·중·일 3국이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제11회 한·중·일 문화 장관회의’도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 시 문화예술과 ☎ 440-4013



### 공공디자인에 ‘색’을 입히자



우리 시는 지난 12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공디자인 색 채분야 업무 협약 체결식 및 시민 디자인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한국여성디자인협회, 한국디자인기업협회 인천지회, 인천산업디자인협회, 노루페인트 등 학회와 기업과 공공디자인 색채 분야 협력을 통해 인천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범시민 디자인운동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시는 주민·공무원·대학생 세미나 및 실무교육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가 양성, 공공디자인 연구자문·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디자인 재능기부, 사회공헌 협업 및 사업발굴에 협력하기로 했다.

문의: 시 도시경관과 ☎ 440-4793

### 무의도 국립자연휴양림 2021년 준공

수도권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구 무의도에 국립 자연 휴양림이 조성된다. 인천시는 올해 설계를 끝내고 2019년 공사를 시작해 2021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무의도 138만6천㎡ 부지에 조성될 국립 자연 휴양림에는 ‘숲 속 수련관’을 비롯해 ‘산림 문화 휴양관’ ‘숲 속의 집’ 등 관광객들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콘도·펜션 형태의 숙박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문의: 시 공원녹지와 ☎ 440-3677



### 식품산업단지, 수도권에 첫 조성

수도권 첫 식품산업단지인 ‘아이푸드파크(I-Food Park)’ 기공식이 지난 12월 13일 서구 금곡동 사업 예정지에서 열렸다. 식품산업단지가 지방 농촌 산업단지인 농공단지에 소규모로 조성된 경우는 있지만, 수도권에 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말까지 조성되는 아이푸드파크는 김치·떡·조미김 등 식품 제조·가공업체 60여 개가 입주할 예정이다. 또 식품전시관, 놀이 체험장, 판매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 식품 제조 과정을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문의: 시 위생안전과 ☎ 440-2797

### 새 시청사에 시민 위한 ‘열린 공간’ 조성

인천시청 새 청사가 주변 미래광장 등과 연계한 ‘열린 청사’로 만들어진다. 시는 지난 12월 20일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보고회를 열고 신청사 건립과 현 청사 활용 방안을 공개했다. 새 청사는 현 청사 운동장 북쪽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7층, 연면적 8만㎡(주차장 3만6천㎡) 규모로 짓는다. 시민광장 등을 갖춘 ‘가고 싶은 청사, 오고 싶은 청사’가 콘셉트로, 2021년 11월 준공이 목표다. 새 청사에는 기존 청사 사무실과 송도국제도시 G타워 등 곳곳에 분산돼 있는 사무실이 입주한다. 2층에는 오픈카페, 4층에는 옥상공원, 15층에는 중앙테라스가 각각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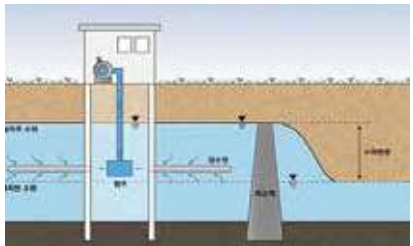
한편 1985년 만들어진 기존 청사는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강좌실, 공연장, 북카페 등 문화 복지공간으로 사용하고, 기존 운동장은 시민광장으로 조성된다.

문의: 시 총무과 ☎ 440-2218

### 대이작도에 지하댐 건설

만성적인 물 부족을 겪는 인천시 옹진군 대이작도에 2019년까지 지하댐이 건설된다. 지하댐은 지하수가 흐르는 대수층(帶水層)에 인공 물막이벽을 설치해 물을 가둔 다음 집수정(集水井)을 통해 뽑아올리는 시설이다. 섬에 지하댐이 건설되는 것은 대이작도가 처음이다. 대이작도 지하댐은 깊이 13m, 길이 60m, 1일 취수용량 180t 규모다.

문의: 시 수질환경과 ☎ 440-3633



### 청라에 로봇타워·로봇연구소 문 열다

지난 12월 4일 청라국제도시에 국내외 로봇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로봇타워’와 ‘로봇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지하 2층~지상 23층, 연면적 3만7천㎡ 규모의 로봇타워에는 드론을 포함한 로봇 관련 기업이 입주해 로봇 제품 기획·생산·서비스를 하며, 내부에 입주기업 사무 공간·세미나실·창의성·보육·식당 등을 갖췄다. 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1만4천㎡의 로봇연구소는 로봇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 인증·검증, 테스트 등을 담당한다.

문의: 시 신성장산업과 ☎ 440-3109



### 지하철 등 역사 등에 도로명안내도 설치

우리 시는 인천지하철 1·2호선, 수인선, 공항철도, 경인전철 등 69개 역사에 도로명 안내도와 출구 정보를 설치했다. 그동안 인천 지역 지하철 역사에는 건물명과 지명으로만 위치 안내를 표기해와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로 목적지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진행됐으며 각 역사에 설치된 도로명 안내도와 출구 정보는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문의: 시 토지정보과 ☎ 440-4593

### 차상위계층 등 주민세 감면 추진

우리 시는 차상위계층, 80세 이상 노인, 국가보훈자에게 주민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 개정안을 내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조례개정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하면 차상위계층, 만 80세 이상 노인,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를 비롯한 6만7천여 명이 3년간 주민세 가운데 개인균등분 1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문의: 시 세정담당관실 ☎ 440-1623

### ‘서울외곽~인천공항고속도 접점’ 노오지 JCT 진출입로 만든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만나는 노오지 분기점(JCT)에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진출입로 공사가 추진된다. 시는 계양구 굴현동 노오지 JCT 진출입로 건설을 위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오는 4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 공사를 시작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서울에서 인천 방향 연결로는 연장 1.69km, 인천

에서 서울 방향 연결로는 연장 1.38km, 교량 2개소가 각각 설치된다. 한편 노오지 JCT에 진출입로가 생기면 교통 혼잡 완화 및 인천과 서울 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인고속도로의 차량 흐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시 도로과 ☎ 440-3722

### 호국·보훈 대상자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우리 시는 이달부터 호국·보훈대상자들과 그 자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호국·보훈대상자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총 150억원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중 최대 2억원을 지원하며, 금리는 신한전세대출 고시금리(2017년12월11일 기준 최저금리 3.02%)를 적용하고, 상환기간은 3년으로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문의: 시 소상공인정책과 ☎ 440-4214, 신한은행 ☎ 1577-8000

### 전통시장에 ‘말하는 소화기’ 보급



우리 시는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해 인천종합어시장 등 관내 44개 전통시장에 말하는 소화기 1천318대를 설치한다. 말하는 소화기는 소화기 사용법이 음성으로 나와 사용자가 비상시에 허둥대지 않고 차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한편 시는 이번 말하는 소화기 보급을 위해 지난 9월 군·구별로 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수요를 조사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문의: 시 재난대응과 ☎ 440-1842





# IFEZ NEWS

## IFEZ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호응



IFEZ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가 국토교통부 공간 정보사업 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 중 우수상을 수상했다. IFEZ의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영종지구 등 IFEZ 전 지역에 대해 3차원 모델링자료를 기본으로 2D, 3D, 항공·VR의 기법으로 과거와 현재를 PC 및 모바일 기기에서 조화·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는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53개국 4만9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돼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송도·청라·영종 ‘맛집’ 안내서 발간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청라·영종지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을 위해 음식점 안내책자 ‘2018 IFEZ 식도락여행’을 발간했다. 책자에는 음식 맛과 위생 상태, 분위기가 좋은 음식점 104곳의 대표 음식, 내·외부 사진, 위치, 가격정보 등을 담았고, 영어·중국어·일본어를 병기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IFEZ 홍보관, 인천공항, 인천 종합관광안내소 등지에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며, 경제자유구역청청이 운영하는 관광·맛집 블로그 ‘아이페즈인’(blog.naver.com/ifezucity)에 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 무의솔레어북합리조트 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에 지정

중구 무의동 무의솔레어 북합리조트 개발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 무의솔레어 북합리조트 개발사업지구 44만5,098㎡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무의솔레어 북합리조트 개발사업은 2018년 실시계획 승인, 2023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리조트호텔, 메디텔, 오션뷰호텔 등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인 오션뷰가든, 워터파크, 아트앤드컬처허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상반기 개관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이 올해 상반기에 문을 열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로부터 아트센터 콘서트홀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청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시설물 인수인계,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콘서트홀을 개관할 예정이다. 1천727석 규모의 콘서트홀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아파트 단지를 개발해 얻은 이익금으로 건립한 뒤 인천시에 기부 채납하게 된다.

## IMAGE NEWS



2018 인천 뚝배기

새해 인천의 맛  
따뜻하고  
속 든든한 도시

입맛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재미있고 활력 넘치는 ‘살맛’나는 도시  
도시 곳곳 행복지수 ↑

#2018년 새해, #인천은 더 ‘살맛’난다!

01

#땅길, 바닷길, 하늘길...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하니  
#다시 돌아오는 ‘살맛’

02



부족하고 허전한 이들을 위해  
속을 따뜻하고 든든하게 채워줄 도시

#원도심와 신도시가 공생하고,  
#첨단 산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니  
#벌써부터 속이 든든!

03



새해 인천과 함께  
한 뚝배기. 하실래요?

부채걱정은 뚝.  
행복체감은 배.  
기쁘게 하는 기.

#든든한 뚝배기. 음식처럼  
#시민을 힘나게 할 #인천의 새해를 기대하세요!

04



# COUNCIL NEWS

## ‘행복나눔인천’에 사랑의 쌀 후원



시의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따뜻한 이웃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7 사랑의 쌀 후원금 8천398만원(강화쌀 10kg 323포)’을 ‘행복나눔인천’에 전달한 것이다. 이번 후원금은 시의회가 각종 행사를 검소하게 개최하고 절감한 예산으로 마련했다. 지난해는 인천 인구 300만 명을 기념해 300세대에 후원했는데, 올해는 인천인구 300만 명 돌파를 기념하고, 채무비율 23% 재정위기 조기극복을 기념해

323세대에게 지원하게 됐다. 시의회는 또 2017년 크리스마스 쌀 기부-증정식을 갖고 대한 결핵협회 인천시지부에 결핵퇴치를 위한 성금도 전달했다. 제갈원영 의장은 전달식에서 “이웃돕기 성금 및 기부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이번 행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시의회 대표단, 대만 가오슝시의회 방문

시의회가 지난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대만 가오슝시를 방문해 인천-가오슝 양 도시 간 관광·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자매도시인 가오슝시의회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은 2014년 이후 교류협력이 미진했던 우호도시 의회와의 관계를 다시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단은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을 단장으로 모두 9명으로 이뤄졌다. 제갈원영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가오슝시와 인천시가 경제·산업·문화·관광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히고 “이는 양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의회와 가오슝시의회는 지난 2010년 ‘상호 우호교류협정서’를 체결한 이래 대표단을 교환하며 지속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 ‘제5회 우수의정대상’ 5명 수상



‘제5회 우수의정대상’에 최석정, 홍정화, 노경수, 임정빈, 박종우 시의원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 의원은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부진사업의 정상화에 노력했고, 미래 성장동력사업인 항공산업 육성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 의원은 효성동 경남아파트 방음벽과 주차장 설치, 효성동 2번 버스 종점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효성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업적을 인정받았다. 노 의원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조례 추진으로 주민편의에 힘쓰고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민생법안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임 의원은 남구지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용현1·4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인천국립보훈병원 건립 등으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훈가족들에게 진료편익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의원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수동 일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기여한 점과 인천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기틀을 마련한 점이 수상 배경이 됐다.

## 제3기 의정모니터 간담회 개최



시의회는 지난 12월 18일 제3기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 우수 의정모니터를 포상하고 사기를 진작했다. 또한 모니터 간 활동사항을 공유하며 친목도모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제3기 의정모니터는 총 55명으로, 2016년 7월 위촉해 2018년 6월까지 2년간 운영된다. 지금까지 총 212건의 지역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과 주민 생활 불편사항의 해소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의정모니터 운영을 통해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과 시의회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우수제안자 3명이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갈원영 의장은 “의정모니터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인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발표회 열어

시의회는 지난 12월 27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연구활동을 펼친 총 4개 의원연구단체 중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 ‘인천 청년정책 연구회’ 등 2개 단체가 발표했다. 인천시 집행부와 유관기관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를 공개했다.

시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4개 단체, 23명의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쳤으며, 이는 전체 의원의 약 66%에 해당한다. 한편 제갈원영 의장은 이날 발표회에서 제시된 대안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 인천시 정책 방향에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강호 부의장·박승희 시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의회 이강호 부의장과 박승희 의원이 ‘2017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2월 13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2017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강호 부의장은 ‘좋은조례’ 분야 대상을, 박승희 의원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강호 부의장은 인천지역 서점 활성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인천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등을 위한 다수의 조례를 발의했다. 박승희 의원은 사드 여파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한중 교류와 인천 기업의 중국 수출 지원에 앞장섰으며,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 의회사무처 ☎ 440-6137~8  
홈페이지 : www.icouncil.go.kr







INFO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보 표기 -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0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인천지역  
성화봉송 및 교통통제 안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인천광역시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축하하고 알리는 성화봉송을  
인천 전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88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구간별 교통통제도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봉송기간** : 1월 10일(수) ~ 12일(금) 8:00 -18:30  
**봉송경로**  
1월 10일(수) : 코스트코 송도점→남동공단→인천문화공원(연수구)  
1월 11일(목) : 문학경기장→월미도 →옛시민회관→인천시청  
1월 10일(수) : 시청→삼산경찰서→부평구청→아시아드경기장  
→강화대로→용흥공공원

**교통통제**  
봉송구간별로 2개차선 차량 전면 통제

\*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봉송구간별 시간대 확인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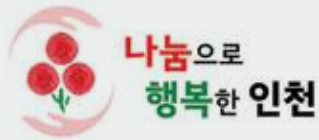
Let Everyone Shine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

02

추울수록 따뜻해지는 나눔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희망 나눔 캠페인은 겨울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착한 캠페인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기간** : 1월 31일(수)까지  
**ARS 기부** : ㉠060-700-1210(1통당 3천원)  
**문의**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456-3333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 접수처 안내**  
인천 지역 군·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이웃 돕기 성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중구 주민생활지원과 ㉠760-6963	남동구 복지정책과 ㉠453-2544	강화군 복지지원실 ㉠930-3785
동구 주민생활지원과 ㉠770-6482	부평구 사회보장과 ㉠509-6374	옹진군 복지지원과 ㉠899-2354
남구 사회복지과 ㉠880-4809	계양구 주민복지과 ㉠ 450-5793	시청 공감복지과 ㉠440-2978
연수구 복지정책과 ㉠749-7664	서구 희망복지과 ㉠560-5883	

03

적십자 회비 모금 안내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지사는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  
됩니다. 후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이웃들을 돕는  
데 쓰입니다. 적십자회비 참여를 통해 우리 이웃에게 도움  
의 손길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중 모금 기간** : 1월 31일(수)까지  
**문의** :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사회협력팀  
㉠810-1315



0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우리 시에서는 영세업체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영세업체들은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기간** : 1월 1일(월) ~ 12월 31일(월)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1개월 이  
상 고용)  
**지원금액** :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접수** :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오프라인)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  
우편·팩스  
**문의** : 시 일자리경제과 ㉠440-4231

05

인천문화예술회관 무대 점검 및 보수 안내

인천문화예술회관이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대 점검 및 보수를 시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사일**  
- 대공연장, 소공연장 1월 2일(화) ~ 14일(일)  
- 야외공연장 1월 2일(화) ~ 20일(토)  
**문의** : 인천문화예술회관 ㉠427-8401



## 06 인천시 여성인재를 찾습니다. 신인 여성 등록 안내

신인(新仁) 여성이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직장, 고향, 학교, 사업 등 관계에 따라 인천에 연고나 기여가 있는 전문직 여성 인재를 통칭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와 같이 신인(新仁) 여성을 정의하고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함께 만들 여성 전문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인 여성으로 등록해 더 나은 인천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등록 방법

인천시 홈페이지(field.incheon.go.kr/app/women), 이메일 300in@korea.kr이나 팩스 032-440-8656를 통해 등록  
문의 : 시 여성정책과 ①440-2692

## 08 ‘도시 디자인 캠프·경진대회’ 참가 모집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는 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송도국제도시 내 캠퍼스에서 열리는 ‘도시 디자인 캠프·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 도시 디자인에 관심 있는 고교생 누구나  
(팀으로 참가 시 구성인원은 4명까지 가능)

신청기간 : 1월 17일(수)까지

신청방법 : 홈페이지(asiacampus.utah.edu)로 신청

혜택 : 우승자에게는 유타대 입학 시 장학금 제공

문의 : 유타대 입학처 ①626-6000

## 10 몬스터VR이 쏜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현실 테마파크 ‘몬스터VR’에서 2018년 새해를 맞아 선착순 1,000명에게 뷔페식사권을 증정합니다.

대상 : 송도 몬스터VR 평일 자유이용권 이용고객 (평일 선착순 50명)

기간 : 1월 2일(화)~29일(월)까지

식사장소 :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D동 5층 ‘트리플하우스’

※발행당일 점심만 사용가능

문의 : 몬스터VR ①310-9576



## 07 2018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공고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2018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시민은 이용권을 신청하여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 1월 31일(수)까지(예산 소진 시 종료)

사용기간 : 2월 12일(월)~12월 31일(월)

사용장소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숲체험 등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및 아동 수당 수급자

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①042-719-4026

⑨www.forestcard.or.kr

## 09 2018년 ‘문화재, 우리가 지켜요’ UCC 공모전

우리 시에서는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재 안전, 애호의식 함양을 위한 손수제작물(UCC)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문화재 우리가 지켜요’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 에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가능

기간 : 1월 24일(수)까지

시상 : 문화재청상(최우수상 등 7점) 및 부상(문화상품권)

문의 : 시 문화재과 ①440-4482

## 11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8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안내

‘지혜의 시대를 여는 지식 네트워크 중심대학’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2018학년도 1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기간

- 신, 편입생 1월 9일(화)까지

- 재입학생 1월 4일(목)까지

문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

①451-7101~3, 1577-2853 ⑨www.knou.ac.kr

## 13 예그리나 통합심리상담센터의 진로상담 안내

인천 예그리나 통합심리상담센터에서 새해를 맞아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전문상담사와 함께 하는 1대1 진로상담을 준비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전문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간 : 1월 1일~2월 28일

장소 : 인천 예그리나 통합심리상담센터

대상 : 중학생 이상 모든 인천 시민

문의 : 인천 예그리나 통합심리상담센터 ①887-8458

## 12 2018년도 남인천중·고등학교 성인 신입생 모집

남인천중학교에서 2018년도 성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움에 목말라 있지만 주저하셨던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기간 : 선착순 접수

지원자격 :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교과부

지정 성인 문해학교초등학력 인정 과정 이수자

수업료 : 무료

문의 : 남인천중·고등학교 ①722-1311~4

## 14 인천 동구 화도진 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운영

동구청에서 겨울을 맞이해 스케이트장 및 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습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 2월 18일(일)까지

장소 : 동인천역 북광장 (1호선 동인천역)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9시 30분

이용료 : 1천원

문의 : 화도진 스케이트장 ①764-0250

## 15 ‘굿모닝인천’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을 공유하기 위해 ‘아이는 행복입니다’ 코너를 운영합니다.

아기와 함께 찍은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나 아이의 귀엽고 재미있는 일상을 찍어 보내주세요.

사진과 함께 ‘아기 이름, 탄생일, 성별, 연락처, 인천에서 성장할 아이에게 바라는 내용’을 함께 적어서 메일(goodvoice@korea.kr)로 보내주시면 ‘굿모닝인천’에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아기는 출생 후~ 24개월까지 해당됩니다.)

문의 : 시 브랜드담당관실 ①440-8304





# “함께 나누는 기쁨, 자원봉사로 시작하세요.”



## 자랑스러운 자원봉사자를 소개합니다

누적 봉사활동 시간이 5천 시간 이상이어야 그 자격이 주어지는 자원봉사왕. 인천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484명의 자원봉사왕이 탄생했습니다. 5천 시간의 자원봉사는 하루 24시간씩 꼬박 208일을, 하루 8시간이라면 600여 일을, 주말 4시간씩 봉사를 해도 25년이 걸립니다. ‘함께 나누는 기쁨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말하는 자원봉사왕을 소개합니다.

유숙형(59세·연수구)

18,874시간

1994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가족의 반대로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함께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장 속상할 때는 갑자기 돌아가시는 어르신의 소식을 접할 때입니다. 마음이 단했던 분들이 농담을 할 만큼 친근하게 대해주시면 그때는 뿌듯함에 신이 절로 납니다.

신홍철(82세·중구)

10,546시간

2002년 대장암으로 수술 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큰 병을 앓아본 바 있기에 호스피스에서 봉사활동하면 아무래도 환자들의 마음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뿌듯한 순간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제게 고맙다고 인사 해줄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원봉사를 멈출 수 없는 이유죠.

이영애(58세·남동구)

13,841시간

2008년도에 지역신문에서 도시락배달 봉사자 모집을 보고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급식 및 도시

락배달 봉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락을 받으시던 어르신 이 돌아가셔서 도시락 배달이 중단될 때 가장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임병준(73세·부평구)

14,264시간

늘 일을 하다가 다리가 아파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급식소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리통증도 많이 나았고, 몸도 전보다 더 건강해져서 너무나 좋습니다. 남을 돕는 일은 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임금자(72세·남구)

11,569시간

적십자 활동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락봉사를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을 만나게 되었고, 동장님과 논의해 밀반찬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독거 어르신을 우리집 지하에 2년간 모시기도 했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만큼 그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느끼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브랜드, 문화가 되다 도시브랜드

글 박혜란 시 브랜드담당관

영원한 악동, 수다쟁이 노장감독 우디 앨런에게 도시는 장소가 아니라 주인공이다. ‘맨해튼’ ‘로마 위드 러브’ ‘미드나잇 인 파리’ ‘비키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 등 우디 앨런은 그만의 유머와 풍자 속에 그 도시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그는 뉴욕이라는 도시의 열렬한 예찬자였는데 1979년 ‘맨해튼’을 비롯해 지금까지 십여 편의 뉴욕영화를 제작했다. 비단 우디 앨런뿐이겠는가? 뉴욕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특별하게 사랑받는 도시다. 언제부터 뉴욕은 그렇게 사랑받는 도시가 된 것일까?

1977년 전까지만 해도 뉴욕은 심각한 경기침체와 높은 범죄율로 파산지경에 이른 암울한 도시였다. 뉴욕시는 침체된 경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광고회사에 도시 마케팅을 의뢰하였고 지금의 **I ♥ NY**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브로드웨이 연극배우들,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유명배우들이 I love New York을 외치고 로고송을 부르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하면서 세계 제1의 도시, 세계의 수도라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I ♥ NY**의 로고를 이용한 티셔츠, 컵 등 다양한 문화상품은 뉴욕시의 중요한 수익모델로 자리 잡았고 뉴욕의 패션과 디자인 문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뉴욕시는 40년 동안 **I ♥ NY** 슬로건과 로고를 단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뉴욕의 상징적 이미지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잘 만들어진 도시브랜드 하나가 도시의 경쟁력이 된다. 지난 해 인천시는 300만 인구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발표하고 다각도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브랜드는 그 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의미의 도시브랜드 **all ways INCHEON**은 국내는 물론 세계로 길을 열고, 길을 잇고, 길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제 그 시작의 길을 걷는 **all ways INCHEON**에게 기대해 본다. **I ♥ NY**이 뉴욕커들의 자부심과 사랑이 되었듯 **all ways INCHEON**이 인천시민들의 자부심과 사랑이 되어 주기를. 뿐만 아니라 우디 앨런에게 더 나아가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도시가 되어 주기를.





## 인천 소통 '파이프라인' 굿모닝인천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 응답하라, 1994!

그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처음 지어졌다. 이 후 23년 동안, 굿모닝인천은 인천시와 인천시민, 인천과 그 밖의 세상을 연결하는 소통의 파이프라인이었다.

송도, 영종도, 청라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고 응원했으며, 만석동 화수동의 갯벌이 스러져가는 모습을 주민들과 함께 애태우며 지켜봤다. 십정동 산동네 사람들과 오순도순 입장단을 맞추고 배다리 헌책방에서 우리나라의 책의 향기를 온 도시에 퍼뜨리기도 했다. 168개의 섬을 뱃길이 닿도록 드나들며 섬사람의 꿈과 애환을 어선에 가득 실어 육지로 날랐다.

대상

### 2017! 응답이 왔다.

굿모닝인천의 소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었다. 굿모닝인천은 지난해 12월 6일,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인쇄사보 사외보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기획 제작 대상 부문에서는 한국사보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영예로운 2관왕이다.

이 상은 국가기관과 공·사기업에서 발행하는 커뮤니케이션 및 저널리즘 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상이다. 굿모닝인천은 참신한 기획과 인천의 정체성이 깃든 깊이 있는 콘텐츠, 편안하고 시각적인 디자인으로 시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열린 시정, 쌍방향 소통.  
인천시 발행 홍보 매체를 소개합니다!



### 시정 홍보지 '굿모닝 인천'

인천광역시의 유일한 종합 시정 소식지다. 1994년 창간, 작년 말까지 288권의 책을 냈다. 오랜 역사가 증명하듯 인천 시민이 즐겨 읽는 잡지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시정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인천의 고유한 역사·문화·관광 등의 콘텐츠를 발굴하며 시민과 호흡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천광역시의 새 브랜드 '올웨이즈 인천(all\_ways\_incheon)'을 모티브로 한 월간 테마 기획이 큰 호응을 얻었다. 신청 및 문의 : 공식 웹진(goodmorning.incheon.go.kr) ☎ 440-8305

### 영문 소식지 'Incheon Now(인천나우)'

2010년 창간된 'Incheon Now'는 인천을 대표하는 영문 간행물로서 인천시의 주요 시정, 시책, 문화·예술, 국제협력 등 인천의 제반 모습을 보여주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인천 나우는 인천 거주 외국인 및 기업체,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 등에게 배포해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인천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다. 신청 및 문의 : ☎ 440-8304



### 중국어 소식지 '인천지창'

2015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유커 마케팅 시대를 대비해 발행한 중국어판 계간지. 인천 안의 '중국 시대'를 열고, 중국인들이 관심 두는 인천의 주요 콘텐츠인 중국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현황, 인천 문화와 관광, 역사, 쇼핑 소식을 실어 인천 관광, 투자 유치를 이끌고 있다. 신청 및 문의 : ☎ 440-8302

###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시민이 함께 만드는 시 공식 인터넷신문. 시가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들었다. 인천을 잘 아는 객원 기자들이 발로 뛰어 발굴한 다양한 인천 이야기가 강점이다.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발간하며,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서비스하고 있다. 신청 및 문의 : ☎ 440-8302



### 인천시 소셜미디어 '온통인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네이버 포스트, 유튜브, 네이버 TV 등 8개 채널을 통해 인천시 시정소식은 물론이고 문화·관광·생활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며 시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7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문의 : ☎ 440-3044



# 우리가 녹는 온도, 인정人情



글 김희(시인)

개의 체온과 맥박이 인간보다 높고 빠르다고 한다. 그러니까 체온은 38~39℃정도 된다는 말이다. 기다리던 첫눈이라도 오는 날이면 이유 불문하고 좋아하는 나에게 옆에서 하는 말들이 ‘개따라서 그런다’라는 말이다. 개가 정말 눈을 좋아하나? 알 수 없다. 그러나 눈발에 뛰어나가 경중경중 함부로 발자국을 남기는 것을 보면 발이 시려서인 것만은 아닌 것을 알겠다. 인천에서 타향살이를 한 지 20여 년이 지났다. 문학을 꿈꾸던 시절 내 안의 좁은 상상력에서 매번 오독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덕분에 제대로 짚어내려던 의욕이 진짜 글공부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오독은 그 후로도 일상이었다. 글에서뿐이었을까? 도시 유목민이었던 내게 인천에 대해서도 오독의 시절이 있었다. 이방인의 편협한 시각을 가진 내게 인천의 첫인상을 결정지은 것은 ‘덤프트럭’이었다. 역시 타향살이였던 서울살이를 막 마치고 온 터라 도로를 질주하는 덤프트럭의 잦은 출몰 또한 삭막한 도시 외곽으로 몰려나온 서러움을 부채질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잠시 신도시인 H시로 이사 갔다. H도시는 도시 정원을 실현한 듯이 아름답고 수목들과 적당한 높이의 집들, 반듯한 도시 구획들이 세련된 이미지를 부각했다. 그렇게 잘 정돈되고 풍요로워 보이는 도시였음에도 결국 나는 그 도시에 정을 주지 못했다.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인천이 그리웠다. H시는 도시 외관과 사람들의 세련된 모습에는 빈틈이 없었지만 사람들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어 바람이 송송 드나드는 것 같았다. 허깨비들 같았다. 어쩌면 말벗이 없는 곳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과장된 것일 수도 있겠다.

돌아온 인천에서 언니들을 따라 북성포구를 다시 찾고 수봉산 자락 골목을 사랑하게 되었다. 한참 뒤에 알게 된 사실로 내가 인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 했던 사건도 있었다. 이름이 도화동인 동네인데 어떻게 복숭아나무 한 그루가 없을까 아쉽고 섭섭해하던 즈음이었다. 집 앞 팔각정을 복숭아나무 정자라 이름 붙이고 나름 뿌듯해했다. 그러다가 새로 인사드린 이웃 어르신을 알게 됐다. 인천 토박이로 살면서 40여 년을 택시운전사로 일했다고 하셨다. “아, 여기 도화는 길 도道 자에 벼화禾 자인걸. 당연히 복숭아나무가 있을 턱이 없지. 진짜 복사골은 요 옆 도원동이잖아.” ‘아! 길도 자에 벼화 자라면... 그렇다 벼와 관련된 동네였던 게 로구나.’ 시까지 지어 야단법석을 떨었던 마음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처음 인천은 삭막하고 메마른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다가왔다. 그 단단하게 잘못 편집된 시각에 균열이 가고 먼지가 앉아 작은 풀씨들이 꽃을 피웠다. 짙네 나는 메마른 가슴에 와서 핀 그 작은 꽃들 이름이 ‘인정’이었다. 사람이 체온을 1℃ 높이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바라건대 서로의 체온이 좀 달라도 다가가 춥고 시린 곳을 덮혀 줄 수 있는 거리만큼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길 빌어본다. 가장 세련되고 오래된 따뜻한 언어는 인정 아니더냐고 살림살이가 밀물과 썰물로 들고 나도, 바닷가 낭만이 보이지 않는 곳을 채우고 비우는 동안 우리 언 가슴도 조금 따뜻해지지 않겠는가 하고. \*정이현 작가의 에세이 제목에서 빌려옴



‘애정을 바칠 수 있는 도시가 강한 도시입니다.’ - 신영복

저자가 페테르부르크에 발견한 것은 도시를 사랑하는 애정이었다.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유적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그곳에서 심혼을 불사르고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삶과 예술을 함께 껴안은 애정이었다고. 고리키, 고골, 차이콥스키, 도스토옙스키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만들어낸 도시 페테르부르크. 이들이 보인 애정이야말로 모든 것의 원동력이었다는 말은 감동이다. ‘애증’이라고 거친 표현을 쓰면서도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밀려오는 2017년도였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에는 우리가 애정을 바칠 수 있는 도시, 인천이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도시로 새롭고 오래된 아름다움을 간직한 제2의 고향이 되기를 기대한다.

# 영흥도 십리포 해변 소사나무



사진 오인영 남구사건인명합회장

척박했다. 자갈과 모래로 된 땅, 매서운 해풍 모두가 죽고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350여 그루’ 형제끼리 가늘고 긴 팔을 서로 보듬어 안았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어부로 위장한 소년들이 경찰을 하던 그 십리포해변을 따라 아름답고 기이한 병풍이 되기까지 긴 세월 곳곳이 버텨내 마침내 숲을 이뤘다. 구불구불한 가지에 새겨진 주름과 뒤틀림, 그건, 우리 삶의 뜨거운 증표다.

나이 : 100~150년  
나무 높이 : 약 2m  
특징 :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해변괴수목’ 군락지. 줄기가 구불구불해 색다른 운치를 자아낸다.